

복지재단 '전주사람' 설립 본격화

전주시, 물샷 틈없는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전주시가 빈틈없는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을 본격화한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각종 민간 복지지원 가능 자원의 연계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전주 만들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6일 전주시지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종사자 및 지역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전주사람(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및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의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용역책임자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연구소 김신열 교수는 "전주시의 사회복지환경 변화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복지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단이 역할 수행을 잘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소통 한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소통 한마당 행사가 26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시의장을 비롯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음식을 함께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민·관 각 기관들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공감하고 상호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초기 설립 과정 에서부터 지역사회내의 복지 관련 주체들과 서로 논의하고 의견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달 19일~24일까지 6일간 전주시민들

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민들은 지역 사회복지 실태에 대해 △복지예산(57.3%)과 △시민복지의식(53.3%), △복지자원의 발굴정도(51.3%)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전주시에 복지재단 설립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7.9%가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반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시민도 49.0%에 달해 재단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전주형 복지재단 모형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명재기자

전북대 학생들, TRIZ 전국 경진대회 석권

(창의문제해결)

'발바닥 청춘팀' 대상·참가한 3개팀 모두 입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학생들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 TRIZ(창의문제해결) 전국경진대회'에서 대상 등 참가한 3개 팀이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전국 11개 대학 25팀이 2차 본선대회에 올라 기업의 애로사항인 '고령화 소비자'를 위한 IT기기 개발에 대한 문제를 TRIZ 기법을 활용해 해결하는 형식이

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전북대 양홍열(기계공학과) 학생 외 3명으로 구성된 '발바닥 청춘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고, 정광조(기계시스템공학부) 외 3명 학생팀이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양홍열 학생은 "대학 지원을 받아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TRIZ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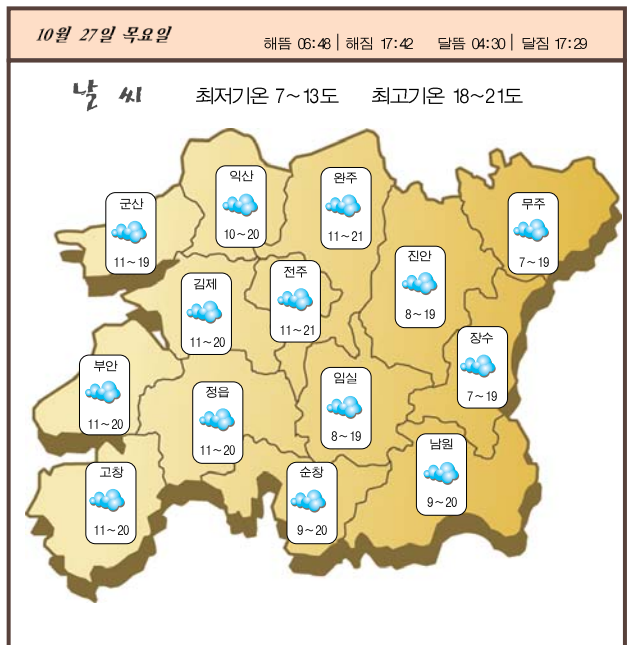
연습을 해보고 다른 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은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수상 못지않게 준비하고 노력한 과정들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되었다. 우리 전북대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팀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간 전북대는 창의적 융합인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TRIZ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지격인증 취득 교육과 액션러닝, 중소기업 애로기술 문제 해결 교육, 전북지역 TRIZ 연합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고민형기자

이를 통해 '2015 산학협력엑스포' 창인발굴오디션 3위, 한국표준협회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대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경진대회' 3년 연속 1위 등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의 우수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다.

설계원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현 시대에 맞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창의력 향상 교육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창조 혁신의 핵심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 지역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내일부터 29일까지 익산유스호스텔서

원광대학교가 전북 지역 대학생 창업동아리 2016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일부터 29일까지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전북대 창업 선도대학과 전주대가 주관하고, 창업·벤처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행사는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 15개 창업지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스타트업 전북 창업벤처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회 참여 동아리는 온도에 따른 컬러조절 기능을 탑재한 전도성보드(아기보드 원광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자동 환풍기

(Arcampay, 전북대), 비행 벌레 퇴치제(3D stay, 전주대) 등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 등 3개 창업 선도대학의 12개 우수 창업동아리다. 수상은 총 5개 창업동아리로 대상 1팀(전북대지사랑)과 최우수상 1팀(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상), 우수상 3팀(원광대·전주대·전북대 총장상)이 선정된다.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시상식은 스타트업 전북 2016 개최가 개최되는 11월4일 전주 중남문 광장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도교육청, 내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55개 사업 9억3,800만원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9억여 원을 집행한다. 도교육청이 26일 발표한 2017년 민간단체보조금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이번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9억3,800만원이다. 선정된 사업은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북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또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 보조사업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